벤투호 필승 의지… 손흥민 선발 투입

오늘 카타르월드컵 시리아와 아시아 최종예선 3차전
"공격진이 부진하다는 의견들 존중… 동의하진 않아"

시리아와의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홈 경기를 앞둔 축구 국가대표팀의 파울루 벤투 감독은 경기 이틀 전 입국한 손흥민(29·토트넘)을 선발로 내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벤투 감독은 시리아와의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A조 3차전을 하루앞둔 6일 비대면 기자회견에서 손흥민 관련 질문에 "손흥민은 선발로 뛸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7일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시리아와월드컵 최종예선 3차전을 치른다.

한국은 지난달 홈에서 치른 1차전에서 이라크와 0-0으로 비기고, 2차전에선 레바논을 1-0으로 꺾어 이란(승점 6)에 이어 A조 2위(승점 4)에 올라 있다. 지난달 안방 2연전에서 연승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벤투호는 7일 시리아전 이후 12일 4차전을 이란 테헤란 원정으로 치러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손흥민을 비롯한 해외파 공격수들이 소속팀에서 절정의 감각을 뽐내고 있으나 이들이 두 차례 시차에 적응해야 하는 만큼 완전한 경기력을 보일지 우려도 나온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에서 주전으로 활약하고 대표팀에서도 핵심 역할을 하는 손흥민은 한국시간으로 3일 밤 열린 애스턴 빌라와의 리그 경기를 마치고 귀국길에 올라 5일 대표팀에 합류했다.

황의조도 소속팀 경기를 소화한 뒤 같은 날 입국했다.

특히 손흥민의 경우 지속해서 장거리 이동에 따른 '혹사' 이슈가 거론되는 가운데 벤투 감독은 이번 시리아전에도 선발 투입을 예고하며 필승 의지를 다졌다.

벤투 감독은 소속팀에서 맹활약하는 선수들이 모이는 대표팀에서 기대만큼 공격력이 나타나지 않는 데 대해선 "소속팀과 대표팀에서의 경기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견해를 내놨다.

그는 "대표팀 공격진이 부진했다는 의견은 의견일 뿐이다. 존중하지만 동의하진 않는다"면서 "이번 경기에 어떤 전술로 나서겠다고 얘기하기보단 경기장에서 보여드리는 게 최선일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9월엔 2차전에서 더 많은 기회를 창출했지만 원하는 만큼은 득점하지 못했다. 1차전도 이길 수 있었던 경기였다고 본다"고 돌아본 벤투 감독은 "이번 경기에선 최대한 많은 기회를 만들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2연전에선 최근 EPL 울버햄프턴에 안착해 득점포를 가동한 황희찬(25)의 활약에도 관심이 쏠린다.

벤투 감독은 황희찬에 대해 "아주 좋은 리그에서 첫발을 뗐는데, 선수에게 매우 좋은 일이다. 특징과 플레이 스타일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대표팀에서도 9월 두 차례 경기 모두 좋은 모습을 보였다. 빠르고 기술도 좋은 선수인 만큼 우리도 이런 장점을 잘 이용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터키 프로축구 리그 페네르바체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민재. 연합뉴스

추신수 내년에 더 기대된다

역대 최고령 '20-20' 달성
KBO 적응과정 고려 합격점

SSG 랜더스는 올 시즌을 앞두고 추신수(39)를 영입하면서 구체적인 개인기록 기대치를 공개했다.

야구통계 예측시스템을 활용해 추신수의 2021시즌 예상 성적을 설정한 뒤 KBO리그 역대 최고 연봉(27억원·이중 10억원은 기부) 책정의 근거로 제시했다.

SSG가 기대한 성적은 타율 0.306, 출루율 0.428, 장타율 0.595, 대체선수 대비승리기여도(WAR) 5.71이다.

국내 선수로 따지면 LG 트윈스 김현수, NC 다이노스 나성범과 비슷한 성적을 낼것이라고 기대했다.

엄밀히 따지면 추신수의 올 시즌 성적은 기대치를 밑돈다.

추신수는 5일까지 타율 0.258, 출루율 0.395, 장타율 0.447, 20홈런, 60타점, 20도루를 기록 중이다.

타율은 5푼, 출루율은 3푼, 장타율은 1할 5푼정도가 기대치보다 낮다.

야구통계사이트 스탯티즈에 따르면 추신수의 WAR은 2.73으로, 이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추신수는 20개 홈런 중 14개를 홈에서 기록했다.

만약 추신수가 잠실구장을 홈으로 사용했다면 홈런 기록이 크게 줄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그러나 SSG는 추신수의 올 시즌 성적에 만족하는 분위기다.

추신수는 최선을 다한다. 타석마다 마치 신인 타자가 처음으로 타격 기회를 얻은 양 고도의 집중력으로 배트를 휘두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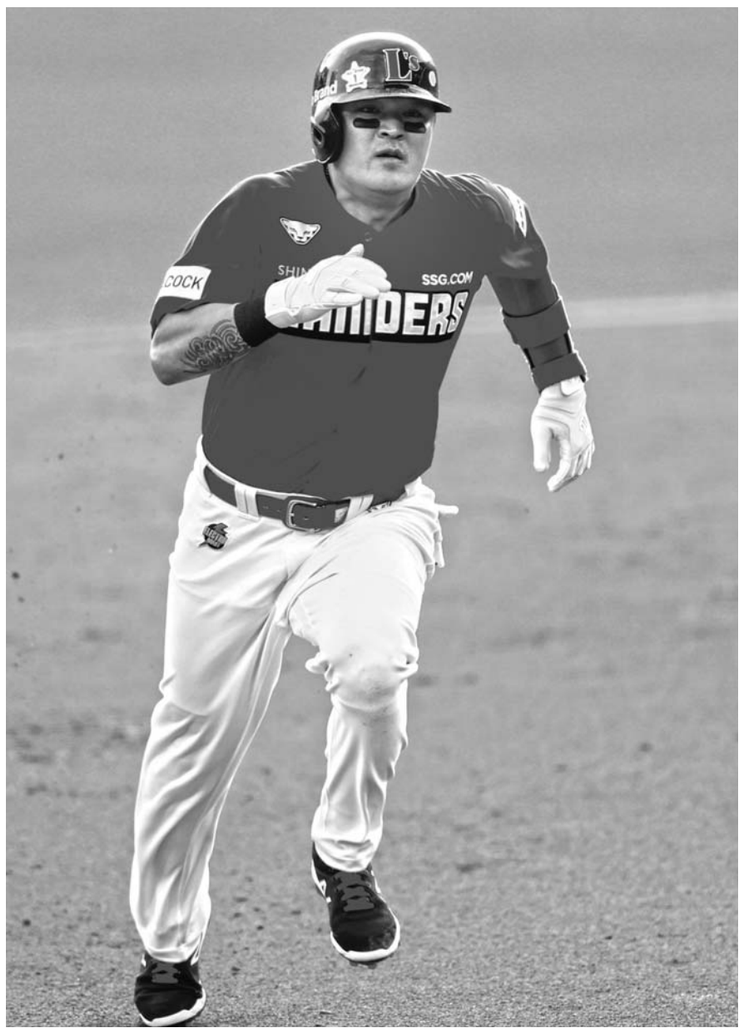
출루에 성공한 뒤에도 마찬가지다. 시시때때로 도루 기회를 살피고, 추가 진루를 위해 전속력으로 뛴다.

이러한 추신수의 플레이는 후배들에게 적잖은 자극이 된다.

추신수는 5일 LG 트윈스와 원정경기에서 시즌 20호 홈런을 치며 역대 최고령 20홈런-20도루 기록을 세웠는데, 이 기록이 위대한 건 홈런보다 도루 성적에 있다.

고참급 선수가 되면 전력 질주를 하지 않거나 부상 위험이 큰 주루 플레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추신수에게 미래는 없다. 당장의 승리를 위해 온 힘을 쏟는다.

이미 부와 명예, 업적을 모두 이룬 추신수는 KBO리그에서 한 시즌 동안 뛰면서 '국내 팬들에게 마음의 빚'마저 깨끗하게 씻었다. 추추 트레인은 내년 시즌에도 경적을 울릴 수 있을까. 초미의 관심사다. 연합뉴스



'호타준족' 20-20 추신수 6일 오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1 프로야구 SSG 랜더스와 LG 트윈스의 더블헤더 1차전에서 5회초 1사에 SSG 1루 주자 추신수가 최주환의 우전 안타 때 3루를 향해 달리고 있다. 연합뉴스

'괴물' 김민재… 조만간 빅리그로?

터키 축구 리그 페네르바체
1년 이적 불가 조항으로 잔류

터키 프로축구 리그에서 활약하는 '괴물' 수비수 김민재(25)가 올 시즌에는 소속팀 페네르바체를 떠날 수 없을 전망이다.

터키 매체 아잔스포르 등이 5일(현지시간) 공개한 김민재와 페네르바체 구단의 계약 내용에는 '1년 이적 불가' 조항이 삽입돼 있다.

김민재는 올해 8월 베이징 궈안(중국)에서 페네르바체로 이적하며 4년 계약을 했는데, 그의 연봉은 200만유로(약 27억5000만원)다.

베이징 궈안에서 뛸 때 받던 350만유로(약 48억20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지만, 유럽 무대 진출을 원하던 김민재는 연봉보다 꿈을 택했다.

대신 바이아웃(최소 이적료 조항)은 900만유로(약 123억9000만원)로 비교적 낮게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재의 기량을 고려할 때 '빅리그' 구단들이 부담하기에 크게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다. 하지만 2021-2022시즌에는 이 금액을 지불해도 다른 팀이 그를 데려갈 수 없는데, 계약서에는 첫 1년은 페네르바체에 남는다는 '특별 조항'이 포함돼 있다.

김민재는 이번 시즌 터키 슈퍼리그에서 7경기,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에서 2경기에 출전했다.

정규리그 첫 두 경기 외 7경기에서는 모두 풀타임을 소화하며 수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연합뉴스

'미스터 퍼펙트' 강경호 4연승 도전

UFC서 야히아와 맞대결

세계 종합격투기 단체인 UFC에서 활약하는 미스터 퍼펙트' 강경호(34)가 약 23개월 만에 옥타곤에 오른다.

UFC는 6일(한국시간) "강경호와 하니 야히아(브라질)의 맞대결이 11월 21일 열리는 'UFC 파이트 나이트 : 비에이라 vs 테이트'에서 펼쳐진다"고 공식 발표했다.

UFC 전적 6승 2패 1무효를 기록중인 강경호는 이번 대결에서 승리하면 4연승에 성공한다.

강경호는 야히아와 지난 8월에 맞붙을 예정이었으나 대회 전날 야히아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경기가 취소됐다.

강경호는 지난 8월 진행된 미디어 데이에서 "난 야히아보다 타격과 레슬링이 우위에 있다"며 "타격이든 그래플링이든, 2라운드 안에 끝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간극장 8:25 아침마당 9: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9:45 KBS 뉴스 제주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생로병사의 비밀(재) 11:50 안녕 우리말 11:55 숨터	6: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6: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7: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8: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부 9:00 KBS 아침 뉴스타임 9:20 국가대표 와이프(재) 10:00 인간극장 스페셜 10:40 지구촌 뉴스 11:00 빨강 구두 스페셜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TV매거진 해피플러스 8:50 두 번째 남편(재)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이 맛에 산다 11:15 꾸러기 식사교실(재) 11:45 뚝딱구조대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25 JIBS 뉴스 7:40 모닝와이드 8: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8:50 좋은 아침 9:55 SBS 10 뉴스 10: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30 고향이 보인다	7:30 뽀롱뽀롱 뽀로로 8:00 딩동댕 유치원 9:40 우리집 유치원 12:10 EBS 부모 13:00 일단해봐요 생방송 오후1시 14:10 명의 15:25 클래스 e 16:15 한글용사 아이야 16:30 딩동댕 유치원 18:00 생방송 뭐든지 해결단 19:35 자이언트 펭TV
12: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13:00 KBS네트워크특선 이리 오너라 조선클럽 13:50 한국의 인류유산 14: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2 14:30 팡팡 다이노 14:45 반짝반짝 달님이 15:00 마법소녀 디디 2 15:15 출동! 유후구조대 2 15:30 방과 후 초능력 16:00 사시건건 17: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7:30 탐나는 제주	12:50 박원숙의 같이삽시다3(재) 13: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15:00 KBS 뉴스타임 15:10 키오카 15:30 TV 유치원 16:00 누가누가 잘하나 17:00 느릿느릿 나무늘보 늘 2 17:15 몬스터 탑 17:30 놓친 예능 따라잡기 17:50 통합뉴스룸 ET	12:00 12 MBC 뉴스 12:20 검은태양(재) 13:40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13:50 2시 뉴스 외전 15:20 뽀뽀뽀 좋아좋아 스페셜 15:50 한글날 특집 우리말 바로 쓰기 15:55 기분 좋은 날(재) 16:55 5 MBC 뉴스 17:10 다큐에세이 그사람 스페셜	12:00 SBS 12 뉴스 12:20 JIBS 뉴스 12:35 원더우먼(재) 14:00 뉴스브리핑 16:00 최강 1교시 17:00 SBS 오뉴스 17:35 JIBS 뉴스 17:50 JIBS 특집 회살머리고지, 1000일의 기록(재)	**제주 CBS FM** 93.3㎒ 90.9㎒ 7:00 김덕기의 아침뉴스 9:00 그대창가에 김석훈입니다 12:00 CBS 낮종합뉴스 12:05 찬양이 있는 숲길 13:30 생명의 샘 15:00 CBS 뉴스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25 한판승부 21:35 라디오강단 22:05 백원경의 기스펠 아워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제주 19:40 한국인의 밥상 20:30 국가대표 와이프 2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21:35 KBS 뉴스 9 제주 22:00 다큐 인사이트 22:50 더 라이브 23: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18:30 2TV 생생정보 19:50 빨강 구두 20:30 UHD 기후변화 특집 지구의 경고 4편 21:30 달리와 감자탕 22:40 살림하는 남자들(재) 23:55 스포츠 하이라이트	18:05 생방송 오늘 저녁 19:05 생방송 연금복권 720+ 19:10 두 번째 남편 19:40 MBC 뉴스데스크 21:00 극한데뷔 야생돌 23:00 명쾌한 주	18:50 포커스 인 제주 19:50 SBS 8 뉴스 20:30 JIBS 8 뉴스 21:00 워맨스가 필요해 22:30 당신이 혹하는 사이 2	**KCTV** 7:00 KCTV 뉴스 8:00 디플로맷 토크 9:30 셰프의 팔도밥상 11:30 문화카페 12:00 KCTV스페셜 13:10 머스트 잇 혼자라도 괜찮아 14:00 문화카페 15:00 KCTV 뉴스 15:20 셰프의 팔도밥상 16:10 머스트 잇 혼자라도 괜찮아 17:00 KCTV 뉴스 18:00 문화카페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BN제주교통방송 제주시 FM 105.5㎒ 서귀포시 FM 105.9㎒

KBS ☎ 064)740-7331 / MBC ☎ 064)740-2432 / JIBS ☎ 064)740-7800 / KCTV ☎ 064)741-7723 / 제주CBS ☎ 064) 748-7400

오늘의 운세 7일

김종상 지단(知旦) 작명역학 원장
경기대 평교원 교수(010-5233-6136)

36년 나보다는 남을 중히 여기는 지혜가 필요. **48년** 직장인은 인기가 있고 인정받는다. 미소를 환하게 웃어라. **60년** 충언과 간언을 구별하는 귀가 필요. 배반, 배신수가 따르니 행동에 신경써라. **72년** 관재구설이 우려된다. 건강 관리 철저. **84년** 취업이나 직장의 소식이 있으며, 이성이 다가온다.

37년 좋은 생각과 행동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니 긍정적 생각을 하라. **49년** 생각이 많으면 하는 일에 지장을 초래하니 잡념을 버려라. **61년** 집보다 외부활동이 필요하다. 구직자는 희소식이 오기도. **73년** 직장이나 결혼의 길한 소식이 오고, 기혼자는 부부간 오해가 생긴다. **85년** 오늘은 성실과 침착함이 필요.

38년 변화를 주고 싶고 활동욕구가 강한 날. **50년** 약속을 잘 이행하고 신용을 중시하라. 신뢰를 잃는 경우가 생긴다. **62년** 직장이나 업무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온다. **74년** 의욕과 충동성이 강하고 실천력이 있다. 결혼 운, 이성교제 길. **86년** 현실이 어려워도 실력만이 나를 인정. 자격, 면허가 절실히 필요하다.

39년 결단을 내리고 때를 기다리면 소식이 온다. **51년** 혼자서는 해결이 안되니 가까이 있는 사람과 상의하라. **63년** 불필요한 것에 호기심이나 관심은 손재로 연결된다. **75년** 목표와 뜻이 좋아도 방법이 서툴면 만사가 엇갈림. **87년** 직업에 변화가 오거나 갈등이 오니 밖으로 활동하는 게 좋다.

40년 자녀 또는 친구로부터 근심되는 일로 소식을 받는다. **52년** 반가운 소식이 있거나 뜻하지 않은 행운이 있다. **64년** 명예가 있는 분은 초대 받을 일이 생긴다. **76년** 미혼자는 변화가 필요. 기혼자는 자녀 또는 기쁨이 찾아온다. **88년** 불투명한 오늘보다 계획있는 미래 설계가 필요.

41년 명예가 실추되거나 손상이 따르니 감언이설을 조심해야 한다. **53년** 능력은 주위에서 인정해야 하는 법. 자신을 나타내기 보다 책임완수를 다하라. **65년** 취업 또는 직업이 생기는 소식을 접한다. **77년** 이성교제나 만남이 생기고 구매욕구 강함. **89년** 내가 가장 학습능률이 오르는 시간에 복습을 집중하라.

42년 일 진행이 안되면 아랫사람과 상의해 도움을 받아야 좋다. **54년** 문서 이동 또는 외출할 일이 만들어진다. **66년** 실언 또는 말로 인한 구설을 조심하며 북쪽은 흉하다. **78년** 전문자격을 갖추도록 준비하는 시간 필요. **90년** 가벼운 운동과 산책으로 건강관리에 충실.

43년 화를 내면 하루가 힘드니 마음을 비워라. **55년** 돈 때문에 신경이 예민해진다. 대인관계의 폭이 넓으면 좋다. **67년** 힘에 부치는 일은 주변인에게 협조를 구하라. 과로는 만병의 원인. **79년** 시작은 좋으나 마무리에 약하니 끝까지 신경써야 한다. **91년** 마음의 문을 열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라.

44년 영업에 이익이 있기도 하지만 변화를 주려는 사람도 많다. **56년** 충동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보다는 충분한 생각 후 결단이 필요하다. **68년** 금전적인 문제로 시비나 다툼이 오가니 금전거래 시 자제나 보류. **80년** 부모님이나 윗분으로 인한 자금 지출을 하게 된다. **92년** 큰소리가 오갈 수 있다. 감정 자제.

45년 시비, 구설이 오니 앞장서는 일은 신중하게. **57년** 순리에 따르면 일이 풀린다. 무리수를 두지마라. **69년** 남에게 베풀거나 나눔을 줄 일이 생긴다. 나를 필요하는 곳이 있다고 희망을 가질 것. **81년** 이성교제가 생기나 내 자신은 준비가 부족하다. **93년** 당장 결실이나 재물이 모이지 않아도 서서히 회복한다.

46년 갈 곳이 많고 재물 지출이 많다. 필요한 돈만 지참할 것. **58년** 동업이나 투자문제로 주변 또는 친구와 의견을 나눠 볼 것. **70년** 가정에서는 불화나 근심수가 있다. **82년** 새로운 일이나 직장문제로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한다. 주변에 지혜를 얻어라. **94년** 건강에 이상이 올 수 있다. 무리 하지 말 것.

47년 문서나 매매는 길하고 전문업에서 수익 증가. **59년** 동업이나 협력의 일이 생기고 기쁨이 온다. 투자 투기는 금물. **71년** 실천하려 하나 몸이 따르지 않고 마음만 급하다. **83년** 이성 또는 애정 관계로 망신수가 생기니 남녀관계는 신중함과 냉철한 판단 필요. **95년** 급하면 불화만 오니 느긋한 여유가 필요.